

## 한국·부산과의 교류를 돈독히 하고 있는 쓰시마

池田晋介

(株)신와경제문화연구소 주임연구원

### 차 례

요지	4. 쓰시마-부산 쌍방의 의식 조사
1. 서론	5. 쓰시마의 앞으로 한일 교류 추진 방침
2. 쓰시마와 한국과의 교류 역사에 관하여	6. 쓰시마의 한일 교류 촉진 방안
3. 지역간 교류 협상에 관하여	

### 요지

1. 쓰시마와 한국, 한반도와의 교류 역사는 오늘날 시작된 것이 아니다. 3세기 경 일본의 상황이 기록된 「魏志倭人傳」에서 엿볼 수 있듯이 쓰시마는 물자와 함께 문화를 전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였고 江戸시대에는 당시, 쓰시마를 통치했던 쓰시마 번이 수호 등을 목적으로 한 「조선 통신사」로 불리는 대사절단을 조선국으로부터 江戸까지 여로 호위를 맡는 등, 한일 교류의 중책을 담당하고 있었다.
2. 최근에는 쓰시마의 지역 진출과 한일 교류를 목적으로 한국에서 참가자를 초대하는 풍부한 국제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쓰시마·이즈하라(展原)정에서는 「조선 통신사 행렬」을 재현한 「쓰시마 아리랑제」, 미쓰시마(美津島)정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유명한 뮤지션을 초대한 음악의 제전 「쓰시마 친구 흥악제」, 가미쓰시마(上對馬)정에서는 마라톤을 통한 국제 교류 이벤트 「국경 마라톤 IN 쓰시마」를 개최하고 있다. 또 학교에서는 쓰시마와 부산 쌍

방에서의 상호 학교 방문이나 민박, 수학 여행을 실시하고 있는 외에, 차세대가 한일 교류의 바람직한 형태를 배우고 생각하는 공개 강좌 「신호슈 외교 대학」이나 정 사무소에 대한 국제 교류원 수용, 그리고 쓰시마산의 목재 수출이라는 경제적인 움직임도 보인다.

3. 본 연구소는 2001년 12월에 부산의 (재)부산발전연구원의 협력을 얻어 쓰시마, 한국 쌍방의 상대 지역에 대한 의식이나 교류에 있어서의 의향 등에 관하여 앙케이트를 실시하였다. 앙케이트 결과를 살펴보면 쓰시마에서 본 부산은 국외이면서도 친근감이 있고 가기 쉬운 가까운 관광지로 인식되어 있는 한편, 부산에서 본 쓰시마는 물리적으로는 가깝고 가기 쉽지만 도쿄와 후쿠오카 등과 비교하면 매력이 있는 관광지로 인지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상호의 교류를 추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반영되어 있으며, 쓰시마의 49.2%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회답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부산에서는 9.5%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회답하고 있어, 양자간의 인식 격차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앞으로 쓰시마와 부산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의 다양한 도시나 국가들 상대로 하고 있는 부산에 대하여, 쓰시마는 어떠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는가 또 지역으로서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표명할 필요가 있다. 또 쓰시마 도내의 교통 시스템의 정비나 언어, 표시 등 외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이기 위한 체제 정비, 더욱이 교류의 장을 쓰시마 도내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부산을 방문하는 등 교류의 장을 한국으로 옮기는 것, 즉 「기다림」의 교류에서 「상호 방문」의 교류로 스스로 바꾸어 갈 필요가 있다.

## 1. 서론

1999년 오부치 수상(당시)과 김종필 한국 국무총리(당시)와의 회의 석상에서 오부치 수상이 2002년을 「한일 국민 교류의 해」로 하자고 제안하여 10월의 한일 각료 간담회 장에서 양국 총리에 의하여 정식 합의되었다.

이 「한일 국민 교류의 해」에는 월드컵의 한일 공동 개최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영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양국의 많은 국민이 교류를 깊여 가고자 다양한 이벤트가 전국적으로 행해지려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레벨에서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본 조사에서는 쓰시마와 한국, 특히 교류의 역사가 오래된 부산을 중심으로, 지역간 교류의 상황을 밝히고, 또한 쌍방의 주민 앙케이트의 결과에 입각하여 앞으로 지역간 교류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하여 전망해 보고자 한다.

## 2. 쓰시마와 한국과의 교류 역사에 관하여

쓰시마와 한국간의 교류 역사에 관하여 살펴보기 전에 한국, 쓰시마의 인구와 산업구조 등 지역의 개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1> 대마도와 부산의 위치

### 1) 쓰시마에 관한 지역 개황

쓰시마는 하카타에서 147km, 한편 한국에서는 49.5km로 한국에 가까운 위치에 있다.

쓰시마의 면적은 708.3km<sup>2</sup>으로, 사도 섬(857), 아마미오 섬(819)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다. 지형은 얼마 안되는 해안 주변의 평지에 집락이 정재하는 이외는 섬의 약 9할이 산림으로 덮여 있다(표 1).

인구는 5정 합계가 4만 1,807명으로 (주민 기본 대장·1999년도) 60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다. 한편 세대수는 1만 5,490세대로 증가 경향이며, 핵가족화가 진전되고 있다. 또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은 23.0%로 나가사키현 평균인 19.8%보다 높고, 또 80년의 10.7%에서 12.3 포인트 상승하는 등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다.

<표 1> 쓰시마의 지역개발

인구		41.8천명
면적		708.3km <sup>2</sup>
65세이상고령인구비율		23.0%
총취업자수		2만219명
취업구조 (2000년)	1차산업	23.9%
	2차산업	19.6%
	3차산업	56.5%
지역내 총생산 (1998년도)	생산액	1,392억 6,500만엔
	1차산업	9.3%
	2차산업	25.0%
	3차산업	65.7%
	현전체에 차지하는 수산업생산	15.2%
	현전체에 차지하는 임업생산액	26.8%
제조업사업소수		63사업소
제조업종업원수		877명
제조품출하액등		93억 1,876만엔
부가가치액		44억 3,010만엔

주 : 각 항목의 숫자는 1999년현재의 숫자

자료 : 장기현각종통계자료

총취업자수는 2만명으로 쓰시마 섬 총인구의 약 5할로 이 중 1차산업이 23.9%, 2차산업이 19.6%, 3차산업이 56.5%로, 3차산업의 종사자가 가장 많으며, 지역내 총생산의 내역에서는 정부 서비스의 비율이 전체의 2할을 접하는 등 3차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쓰시마의 기간 산업은 수산업이고, 어업 경영체수는 2,326으로 나가사키현 전체의 18.5%, 수산업 총생산액은 116억 2,900만엔으로 현 전체의 15.2%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종별 어획량으로는 소라 등의 패류, 녹미채 등의 조류가 현내에서도 높은 어획량이 되어 있는 등, 어업이 성행하는 지역이다.

임업도 수산업과 마찬가지로, 현의 임업 총생산액의 26.8%를 접하는 등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쓰시마에서는 「돈코 표고」라는 두꺼운 표고의 재배가 성행하며, 생산량은 2000년에 173t 현내 생산의 95%를 접하고 있다.

이와 같이 쓰시마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또 현내 생산 중 수산업이나 임업 등 1차산업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표 2> 부산의 지역개황

인구		3,831천명	
면적		758.2km <sup>2</sup>	
65세이상 고령인구비율		5.7%	
총취업자수		1,584천명	
취업구조	1차산업	2.6%	
	2차산업	24.0%	
	3차산업	73.4%	
지역내 총생산			27조2,360억원
	1차산업	2.8%	
	2차산업	19.1%	
	3차산업	79.1%	
제조업 업종별 종업원 순위	종업원수		174천명
	1위	피혁제조	12.2%
	2위	의복·모피제품	11.9%
	3위	기타 기계·장비	9.7%
	4위	섬유제품	9.9%
제조업 업종별 생산액 순위	생산액		17조4,410억원
	1위	제1차금속	13.9%
	2위	기타 기계·장비	9.7%
	3위	자동차관련	9.7%
	4위	섬유제품	9.2%
		수출액(백만달러)	
수출품목 순위	1위	섬유	782
	2위	철강	581
	3위	신발	509
		수입액(백만달러)	
수입품목 순위	1위	기타 원자재	2,334
	2위	기타 소비재	723
	3위	기타 자본재	371

주 : 각 항목의 숫자는 1999년 현재의 숫자

1원≒0.1엔, 1US\$ ≒110엔

자료 : 한국각종통계자료

## 2) 한국·부산의 개황

부산은 한반도의 남동부, 수도 서울에서 남동으로 약 450km에 위치하며, 한국내 컨테이너 화물의 90% 이상을 처리하는 등, 한국 최대의 무역항으로 유명하다.

1999년 부산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표 2) 면적이 758.21km<sup>2</sup>, 인구가 383만 1,000명으로 한국 전체의 약 1할에 해당된다.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은 5.7%로 80년의 2.3%에 비하여 3.4 포인트 상승되었다.

총취업자수는 158만명으로 부산시 총인구의 약 4할을 점하고, 이 중 1차산업이 2.6%, 2차산업이 24.0%, 3차산업이 73.4%로, 3차산업의 종사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

다.

제조업을 살펴보면, 종업원 수는 피혁이나 의복, 모피 제품 등의 업종에 많으며, 생산액은 금속제품이나 기타 기계·장비, 자동차 관련 등 금속·기계 관계의 생산이 상위를 점하고 있다.

또, 연간 수출입액이 76억 달러에 달하는 등 부산은 세계 유수의 무역항으로 한국내에서도 서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이다.

이상과 같이, 쓰시마와 부산의 개황을 살펴보면, 쓰시마가 인구 규모 4만명의 지역인 반면 부산은 400만명의 대도시이고, 산업에서는 쓰시마가 수산업이나 임업이 성행하는 반면 부산은 제조업이나 제3차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등, 인구, 산업 특성이나 구조, 규모의 다양한 면에서 크게 다르다.

### 3) 예로부터 이어지는 한반도와의 교류 역사

쓰시마와 한국, 한반도와의 교류 역사는 오늘날 시작된 것이 아니다.

3세기 경의 일본의 상황이 기록된 『魏志倭人傳』에서 엿볼 수 있듯이, 쓰시마는 불자와 함께 문화를 전하는 가교의 역할을 해 왔다. 에도 시대에는 당시 쓰시마를 통치하고 있었던 쓰시마법에 의하여 일본과 국교를 단절하고 있었던 조선국과의 국교 회복이 도모되었다. 또, 조선국으로부터의 500명이나 달하는 대사절단 「조선통신사」를 에도까지 여로의 호위 임무를 맡는 등, 중책을 담당해 왔다.

83년에 가미쓰시마정이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자매 결연을 체결, 86년 5월에는 쓰시마 섬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와의 자매 결연으로 확대되었다. 더욱이 94년 9월에는 양자간에 「행정 교류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고, 인적 교류의 증대와 상호 이해, 우호를 목적으로 경제·무역·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의 확대가 도모되었다. 그 가운데,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쓰시마 6정의 공무원간의 교환 근무나 행정 교류 세미나의 상호 개최 등, 지속적인 사업도 전개되게 되었다.

## 3. 지역간 교류 협상에 관하여

쓰시마와 한국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역간 교류가 행해지고 있는가 살펴보기로 한다.

### 1) 한국인의 이용이 많은 쓰시마~부산 항로

쓰시마와 한국을 연결하는 국제 항로에 관하여 살펴보면, 쓰시마와 한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은 해로 뿐이며, 88년에 히타카쓰항(가미쓰시마정)~부산항간을 연결하는 부정기 항로

「아오시오」호가 개설되었다. 그 후 99년 7월에 이즈하라 항(이즈하라정)~부산항을 연결하는 고속 여객선에 의함 부정기 항로가 개설되어 2000년 4월부터 정기화, 그리고 2001년 4월부터 히타카쓰항~부산항간을 고속 여객선이 취항하였다(표 3).

<표 3> 쓰시마의 국제항로

선명	항로	운항주체	취항일	비고
아오시오	비전승~부산	쓰시마국제라인	부정기	부정기
비틀II(제비)	비전승~부산	JR구주	화요일(부산⇒比田勝) 목요일(比田勝⇒부산)	부정기
시플라워	엄원~부산	대아고속해운(한국)	매주 금, 토, 일요일	2000년 4월 정기화
	비전승~부산	대아고속해운(한국)	매주 화, 목요일	2001년 4월 취항

주 : 시플라워(엄원~부산)는 2000년 4월당초, 월, 수, 금요일에 운항. 그후 2001년 4월에 토, 일요일을 추가하여 주5회 운항하였지만, 2001년 9월부터 토요일은 격주 운항하여 주3회 운항이 되었다.

자료 : 長崎縣大馬支廳

쓰시마~부산간의 국제 항로의 이용 상황에 관하여 살펴보면, 쓰시마에서의 2000년 이용실적은 입국자 9,781명, 출국자 9,568명, 출입국자 합계 1만 9,319명이고, 마찬가지로 2001년은 입국자 10,179명, 출국자 9,909명, 출입국자 합계 20,088명이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내용을 둘러싼 문제로 한일 교류 행사가 중지 혹은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전년비 4.0% 증가하였다.

계절적으로 1년을 통하여 7월, 8월의 이용이 많다. 이것은 쓰시마에서 행해지는 항례 이벤트가 이 기간중에 집중되어 있는 것, 또 학교의 여름 방학에 캠프나 해수욕 등을 위하여 쓰시마를 방문하는 한국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기 취항하고 있는 시플라워의 여객 운임은 부산발 표가 편약 약 5,700엔, 이즈하라발 표가 7,500엔으로, 부산에서의 구입이 쓰시마보다 싸다.

국적별 이용 상황을 살펴보면, 출입국 모두 한국인이 전체의 약 8할을 점하고 있다. 이는 한국으로부터의 여객 운임이 상대적으로 싼 것과 더불어, 쓰시마는 한국에서 봤을 때 외국이면서, 낚시나 해수욕 등을 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로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플라워를 운영하고 있는 대아 고속해운은 여행 회사와 제휴하고 쓰시마로의 낚시나 캠프, 해수욕 등의 투어를 알선하고 있으므로 한국인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 2) 쓰시마의 대표적인 한일 교류 이벤트

예로부터 한국과의 교류 역사를 가진 쓰시마에서는 지역 진흥과 한일 교류를 목적으로 한국에서 참가자를 초청하여, 국제색이 있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쓰시마·이즈하라정에서는 매년 8월의 제1 토·일요일에 「쓰시마 아리랑제」가 개최되고 있다.

「쓰시마 아리랑제」는 쓰시마 도내의 최대 규모의 여름 축제로, 당초에는 「이즈하라 향 축제」로 64년에 시작되었다.

이 축제에서는 에도 시대에 수호나 장국의 요직 축하 등의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조선 반도의 한양을 출발하여, 에도로 향하는 행렬 「조선 통신사 행렬」을 재현하고 있다.

미쓰시마정에서는 일본 국내 만이 아니라, 한국의 유명 뮤지션을 초대하여 음악의 제전 「쓰시마 친구 음악제」를 9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친구」란 한국에서 ‘친한 사이’를 의미하는 말로, 쓰시마 등에서도 방언으로 사용되고 있고, 한일 상호의 음악을 통하여 교류를 깊이 하고, 우호 관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음악제는 쓰시마가 한일 쌍방의 가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 국내외에 쓰시마를 홍보하는 것 등, 한국과의 교류에 대한 의식의 양성과 지역의 활성화가 테마로 되어 있다.

쓰시마 북부에 위치하는 가미쓰시마정에서는 97년부터 「국경 마라톤 IN 쓰시마」를 개최하고 있다. 이 마라톤 대회는 가미쓰시마정이 해협을 끼고 한국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에서, 쓰시마를 「국경이 보이는 섬」으로 PR하고, 또 마라톤을 통한 정례 이벤트로 지역 진흥을 도모함과 동시에 한국인에게도 참가를 호소하는 것으로, 한국과의 우호·교류 행사로서 시작되었다.

또 2001년에는 매년 4월에 개최되고 있는 한국·경주시의 「경주 벚꽃 마라톤」과 자매 결연을 맺고, 쌍방의 대회에 선수를 파견하는 등 해마다 마라톤을 통한 교류가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주요 이벤트 외에, 2001년도 중에는 30건의 교류 이벤트가 개최되어, 한국과의 지역간 교류가 고조되고 있다.

## 3) 학교, 학업을 통한 한일 교육

한국과의 교류를 이벤트에 한정하지 않고, 한일 학교간에서의 교류도 행해지고 있다.

미쓰시마정의 게이지 중학교에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있는 신선 중학교와 또 같은 미쓰시마정의 이마사토 중학교는 전주·지사와 자매 결연을 맺고 학교 방문이나 민박 등 한일 쌍방의 문화·습관의 이해에 노력하고 있다.

이즈하라정의 현립 쓰시마 고교에서는 2001년 10월에 한국으로의 수학 여행을 실시하여, 부산, 서울과 경주 등의 명소·구적을 둘러보고, 쓰시마와 역사적으로 관계가 깊은 한국의



문화·습관을 배웠다.

쓰시마에서 한국으로의 수학 여행은 88년에 수학 여행 실시 기준의 재고에 의하여 해외로의 수학 여행도 가능해져서, 89년에 처음으로 학생 545명이 한국을 방문하여, 그 후 중학교의 수학 여행지로 선정되었다.

학생수 22,000명인 부산광역시의 국립 부경대학에서는 유학생의 모집 대상에 쓰시마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 입시를 2001년에 처음으로 실시하고, 2002년 4월부터 쓰시마 고교에서 2명의 학생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정되었다.

쓰시마에서는 대학이나 고용의 주체가 되는 기업이 적으므로 고교 졸업자가 취직이나 진학을 위하여 후쿠오카현 등, 도외로 나가는 케이스를 많이 들 수 있다. 조선 반도와 쓰시마와 교류의 발자취를 더듬는 민속학의 연구를 위하여, 자주 쓰시마를 방문했던 부경대학의 강남주 총장은 이 상황을 듣고, 거리적으로 한국에 가깝고, 한국과의 교류에 의욕적인 쓰시마의 젊은이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한일 양국의 가교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이번 쓰시마에서의 특별 입시의 설정, 학생의 수용이 결정되었다. 부경대학에 입학이 결정된 2명은 각각 국제통상학부, 국제지역학부에 재적하여, 앞으로 전문 분야 외의 언어 및 습관을 배우고, 장래에는 한일 양국의 무역 관계 일이나 통역 일을 지향하는 등, 한일 교류의 리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도요타마정의 도요타마 고교에서는 국제 감각이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하여 수학 여행으로 감각이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하여 수학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에, 93년도부터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용하고 과외 활동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 4) 민박 등으로 상호 이해를 깊인다

쓰시마에서는 직접 이야기하는 경우가 적은 한국인과 교류하는 기회를 만들어 국가의 습관이나 문화 등의 상호 이해에 노력하고 있다.

쓰시마 6 정에서는 합동으로 차세대의 한일 교류의 바람직한 모습을 배우고, 생각하는 공개 강좌 「호슈 외교 대학」을 95년부터 개강하고 있다.

이 공개 강좌의 이론의 유래가 된 아메노모리 호슈는 기노시타 준안 문하의 유학자로 17세기 후반에 당시의 쓰시마번에 시관하며, 쓰시마의 학문이나 교육의 기초를 구축함과 동시에, 조선 외교에서 많은 공헌을 한 인물이다. 호슈는 선린 외교에서는 한일 쌍방의 신뢰 관계의 확립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기만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진실로써 교류하는 이른바 「성신(誠信)의 교류」가 필요 불가결하다고 설명하고 조선국의 역사·문화·풍속 등을 배워, 쓰시마에서의 계몽 활동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쓰시마에 뿌리를 둔 위인이나 공적, 역사적인 유산을 재인식하고, 한일 교류의 바람직한 모습을 생각하여, 앞으로의 국제화에 적합한 인재육성에 노력하려고 95년부터 쓰시

마 6정에서의 교대로 「호슈 외교 대학」이 매년 개최되었다. 2002년인 금년은 6정을 1순하였으므로 명칭을 「신호슈 외교 대학」으로 고치고, 종래의 기조 강연이나 한일의 의견 교환회에 추가하여 노래나 영화의 상영도 행하는 등 내용도 채시하여 개최하였다.

쓰시마에서는 국가 등이 추진하는 국제 교류원의 수용 사업 「어학 지도 등을 행하는 외국 청년 초치 사업」(The Japan Exchange and Teaching Program : 통칭 JET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이 제도에 근거한 국제 교류원의 파견에 관해서는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인원 파견을 요청하는 등 한국을 의식한 교류에 노력하고 있다.

더욱이 이즈하라정, 가미아가타정 및 가미쓰시마정의 국제교류협회에서는 한국의 대학생 등 여름 방학 기간 중을 이용하여 민박을 행하고 있는 외에 배드민턴이나 야구 등, 한일의 스포츠 클럽간에서의 스포츠 교류나 음식 문화제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이 행해지고 있다.

##### 5) 쓰시마산 목재의 판로를 한국으로 확대한다.

이벤트의 개최나 지역간 교류 등, 인적인 교류 이외에도, 쓰시마산의 목재 수출이라는 경제적인 움직임도 나타나 앞으로의 교역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쓰시마에서는 50년대부터 삼나무의 식림이 추진되었지만, 도내의 수요가 한정되는 가운데, 2004년에 별채 시기가 도래하는 수령 40~50년의 삼나무나 노송의 도외로의 판로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쓰시마와 마찬가지로 전후의 조립 확대기에 식림이 행해졌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심하여 판로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미쓰시마정의 한 기업에서는 이 상황에 착목하여 목조 주택 등의 건축 용재로, 쓰시마산의 삼나무 1,576개와 노송 750개의 동나무 목재를 한국으로 수출하였다. 이는 쓰시마에서의 한국 지향 목재 수출은 17년만이다.

또 이러한 움직임과 맞추어서 쓰시마의 임업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쓰시마 삼림·임업 활성화 센터」에서는 한국에서의 목재의 유통 실태와 앞으로의 목재 수출의 가능성이나 문제점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에 부산시 등에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부산시 근교의 산간부에서는 산 표층의 대부분에 화강암이 노출되는 뽕, 조림에 부적절한 지질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삼림 자원이 빈약하여, 목재 공급에는 시베리아 낙엽송 통, 수입재에 의존하고 있어, 앞으로 한국의 수요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목재 가격이 일본 국내의 시세를 하회하는 것, 목조 주택의 수요가 일본에 비하여 낮은 것 등의 문제점도 있으며, 제재 코스트의 저감이나 고소득자층에 인기가 높은 별장용이나 내장용 자재의 제공 등, 쓰시마산 목재의 PR, 용도 확대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 4. 쓰시마-부산 쌍방의 의식 조사

이상과 같이 쓰시마와 한국간에서는 이벤트를 비롯한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교류가 추진되어 왔다.

그러면, 실제로 쓰시마, 한국의 쌍방에서는 상대 지역에 대하여 어떤 의식을 갖고, 또 교류에 관하여 어떤 태도를 임하고 있는지, 앙케이트 조사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부산에서의 본 앙케이트 조사에 관해서는 (재)부산발전연구원의 협력에 의하여 실시하였다.

<p><b>조사대상</b>                  쓰시마 : 쓰시마 6정 350인 가운데 회수수 260人(회수율 74.3%)                  부산 : 부산광역시 16구 500인 가운데 회수수 400人(회수율 80.0%)                  실시시기 : 2001년 12월중순~하순</p> <p><b>조사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일 양국가 방문실적</li> <li>· 쓰시마 : (또는 부산)의 방문실적과 그 빈도, 목적</li> <li>· 쓰시마 : (또는 부산)의 이미지나 매력에 대한 평가</li> <li>· 쓰시마 : (또는 부산)와의 교류촉진에 대한 의식</li> <li>· 쓰시마 : (또는 부산)와의 교류촉진을 위해 희망하는 것</li> </ul> <p>* 그림중의 N은 유효회답수</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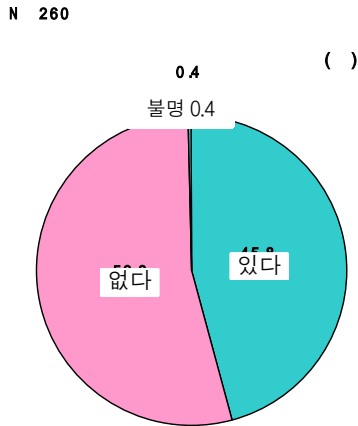
\* 부산발전연구원의 협력을 받아 실시

<표 4> 응답자의 속성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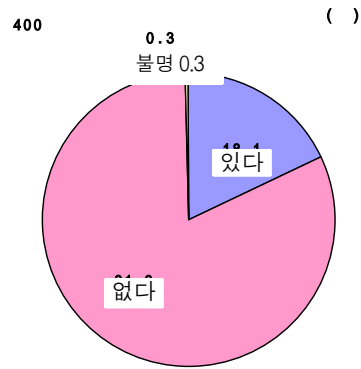
구 분		쓰시마		부산	
		응답수	구성비율	응답수	구성비율
응답자 총수		260		400	
성별	남성	187	71.9	213	53.3
	여성	73	28.1	187	46.8
年 齡	20세대	59	22.7	74	18.5
	30세대	60	23.1	113	28.3
	40세대	78	30.0	84	21.0
	50세대	55	21.2	72	18.0
	60세대 이상	8	3.1	57	14.3

1) 쌍방의 나라로의 여행 경험

쌍방의 나라로의 여행 경험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쓰시마에서는 「있다」가 45.8%, 「없다」가 53.8%, 부산에서는 「있다」가 18.1%, 「없다」가 81.9%로 나타났다(그림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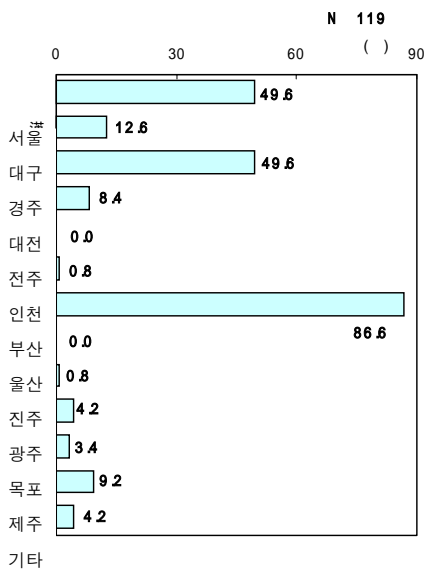
<그림 2> 한국으로의 여행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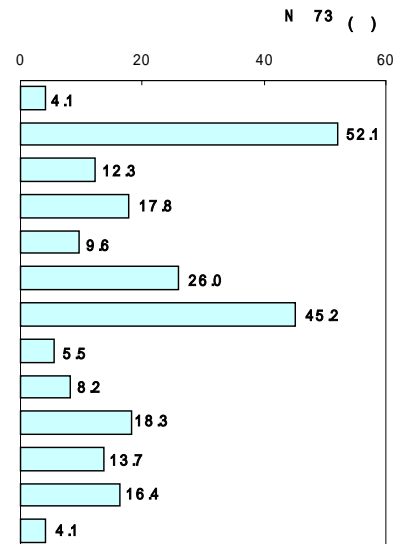
<그림 3> 일본으로의 여행경험

쓰시마에서는 약 반정도가 한국으로의 여행 경험이 있는 것에 대하여 부산에서 일본을 여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체의 2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2) 쌍방의 나라에서 간 적이 있는 지역



<그림 4> 한국에서 간 적이 있는 장소(복수응답)



<그림 5> 일본에서 간 적이 있는 장소(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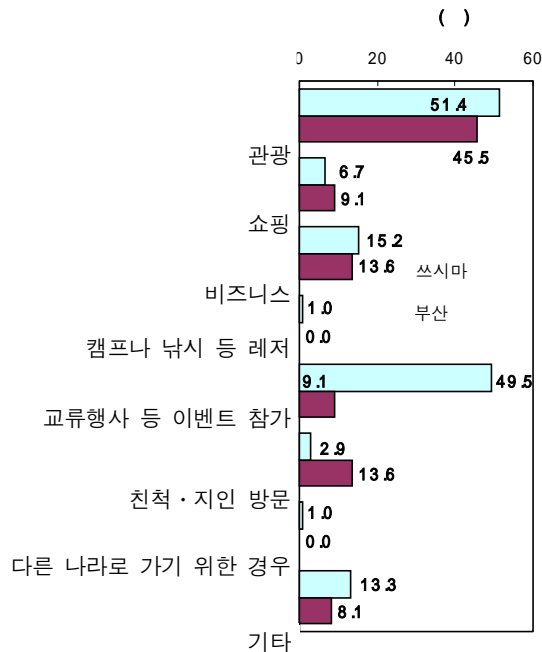
쌍방의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간 적이 있는 지역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쓰시마에서는 「부산」이 86.6%로 상당히 많았고 다음이 「서울」과 「경주」가 함께 48.6%로 나타났다(그림 4, 5). 이와 같이 쓰시마에서는 직접 한국과의 항로가 있는 부산이 압도적으로 방문 실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부산에서는 「도쿄」가 52.1%로 가장 많았고 이하, 항공기나 선편이 많은 「후쿠오카」가 45.2%, 「오사카」가 26.0%로 이어지고 있다. 「쓰시마」는 13.7%로 같은 나가사키 현내의 「이키」(18.3%)보다 낮은 결과로 나타났다.

### 3) 쌍방으로의 도향 목적

쓰시마 부산으로의 도향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목적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쓰시마, 부산 모두 「관광」이 가장 많았다(쓰시마 : 51.4%, 부산 : 45.6%).

또 쓰시마에서는 한일 공동 이벤트가 많이 개최되고 있으므로 「이벤트 참가」도 49.5%로 많았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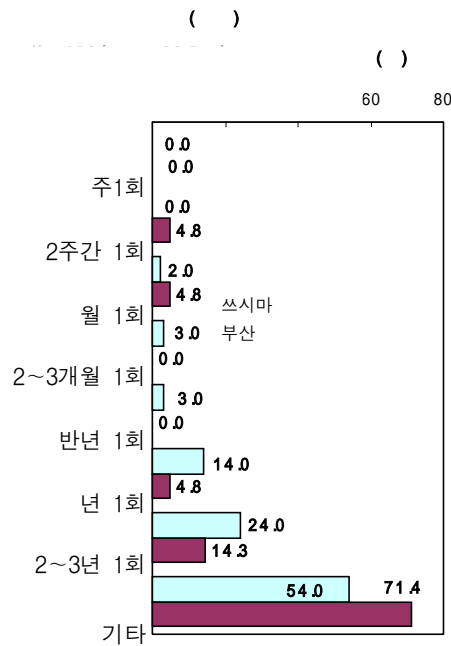
쓰시마 : N=105(응답률 40.4%) 부산 : N=22(응답률 5.5%)

<그림 6> 쓰시마(부산)으로의 도향목적(복수응답)

### 4) 쌍방으로의 도향 빈도

쓰시마, 부산으로의 도향 경험이 있는 사람에 한해, 그 빈도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쓰시마, 부산 모두 「기타」가 가장 많았고(쓰시마 : 54.0%, 부산 : 71.4%), 그 내용은 「거의 없다」가 많이 나타났다(그림 7). 그 이외에 주된 회답으로는 「연 1회」(쓰시마 : 14.0%, 부산 : 4.8%)나 「2~3년에 1회」(쓰시마 : 24.0%, 부산 14.3%) 등, 전체적으로 쓰시마~부산간에서의 도향 빈도

는 적은 결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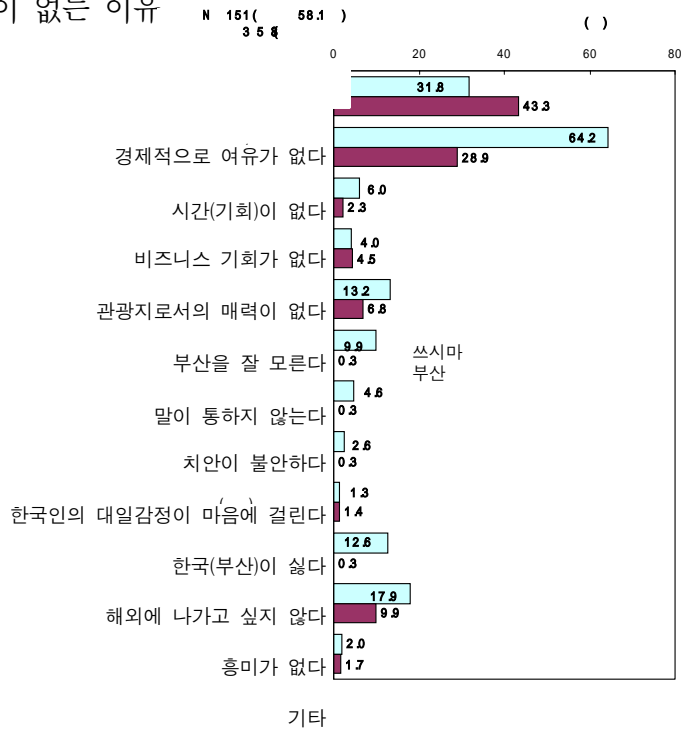


쓰시마 : N=100(응답률 38.5%)

부산 : N=21(응답률 5.3%)

<그림 7> 쓰시마(釜山)으로의 渡航頻度

5) 간 적이 없는 이유



쓰시마 : N=151(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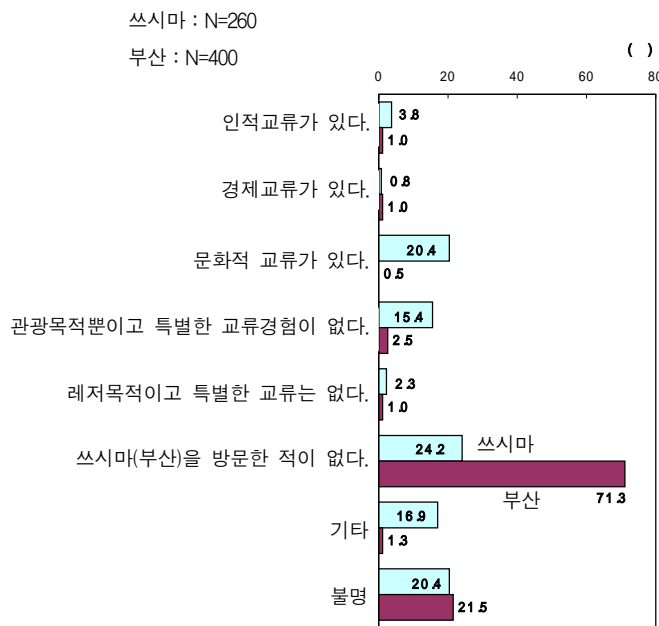
<그림 8> 쓰시마(부산)에 가지 못하는 이유(복수응답)

쓰시마, 부산 쌍방에 간 적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간 적이 없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쓰시마에서는 「시간(기회)이 없다」가 6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가 31.8%를 차지하였다(그림 8). 마찬가지로 부산에서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가 43.3%로 많았고 「시간(기회)이 없다」도 28.9%의 회답이 있었다.

쓰시마, 부산 모두 대개 「시간(기회)이 없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의 회답에 집약되었지만, 쓰시마에서는 「흥미가 없다」(17.9%), 「해외로 나가고 싶지 않다」(12.6%) 등 외국에 대한 흥미가 없다는 등의 회답도 산견되었다.

### 6) 쌍방의 지역과의 교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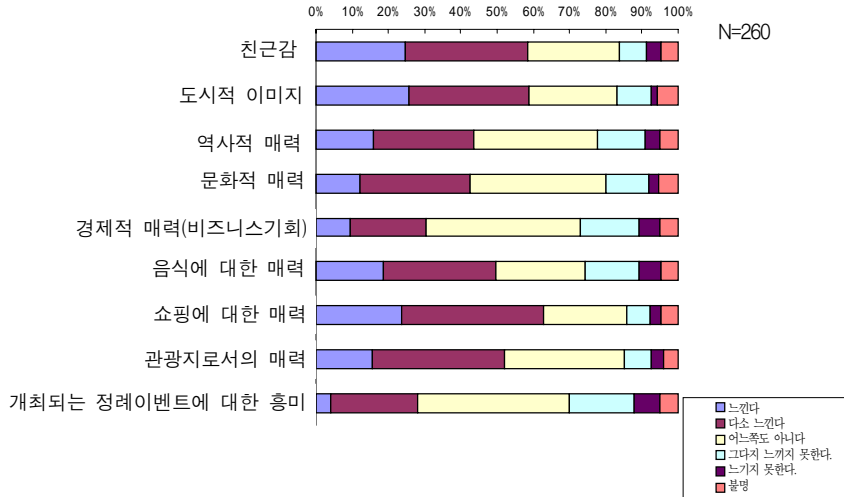
쓰시마, 부산과의 교류 내용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쓰시마에서는 「부산을 방문한 적이 없다」가 24.2%로 가장 많았고, 이하 「문화적 교류가 있다」가 20.4%, 「기타」가 16.9%, 「관광 목적 뿐이고, 특별한 교류 경험이 없다」가 15.4%로 나타났다. 「기타」의 항목에서는 민박이나 수학 여행을 예로 들고 있다(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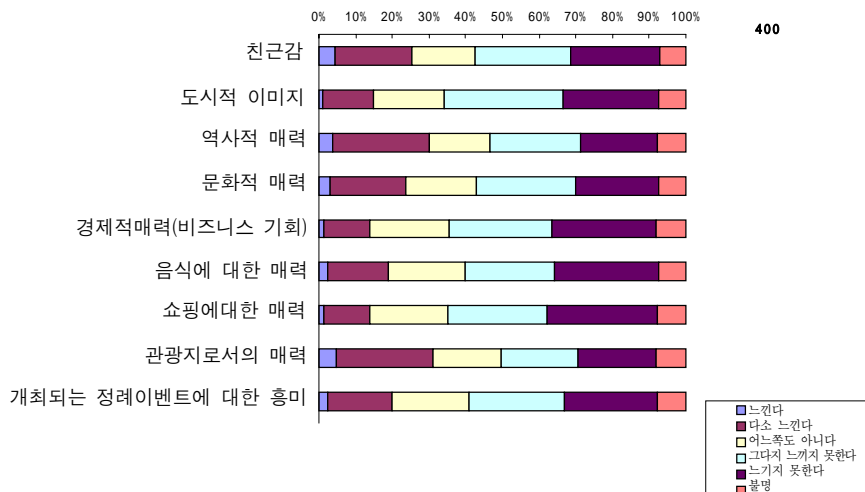
<그림 9> 쓰시마(부산)와의 교류내용(복수응답)

한편 부산에서는 「쓰시마를 방문한 적이 없다」가 71.3%로 발군하게 많았고, 기타의 교류 내용을 보아도 10%도 안되는 등, 전체적으로 쓰시마와의 교류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 쓰시마, 부산 쌍방에 대한 이미지



<그림 10> 부산에 대한 이미지



<그림 11> 쓰시마에 대한 이미지

쓰시마, 부산 쌍방에 대한 이미지나 매력에 관하여 어떻게 느끼는가 질문한 결과(그림 10, 11) 쓰시마에서의 부산에 대한 이미지는 쇼핑에 대한 매력을 「느낀다」, 「조금 느낀다」를 합하면 62.7%, 마찬가지로 「친근감」이 68.4%, 「도회적인 이미지」가 58.9%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쓰시마에서는 부산에 대하여 친근감을 갖고, 쇼핑이나 관광 등 다양한 면에서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한편 부산에서의 쓰시마에 대한 이미지는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느낀다」, 「조금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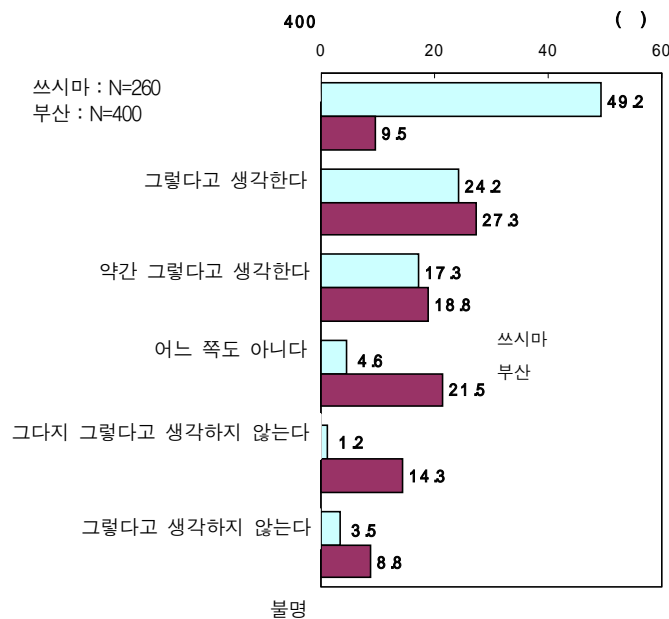


를 합해서 31.0%, 「역사적 매력」이 마찬가지로 30.0%로 회답이 많은 외에, 쓰시마에 대하여 느끼는 매력으로 50%를 넘은 것이 없다. 반대로 매력을 느끼지 않는 항목에서는 「경제적 매력(비즈니스 찬스)」가 「그다지 느끼지 않는다」, 「느끼지 않는다」를 합해서 56.5%, 이하 마찬가지로 「쇼핑에 대한 매력」이 57.0%, 「음식에 대한 매력」이 52.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산에서 본 쓰시마의 이미지는 관광지나 역사 등에 매력은 느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는 회답이 많아, 전술한 바와 같이 쓰시마와의 교류 실적도 빈약한 것에서, 전체적으로 쓰시마의 상황이 그다지 인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 8) 교류 촉진의 의향

쓰시마 또는 부산과의 교류를 추진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쓰시마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가 49.2%, 「조금 그렇게 생각한다」가 24.2%로 전체의 7할이 교류 촉진을 희망하는 등, 교류 의욕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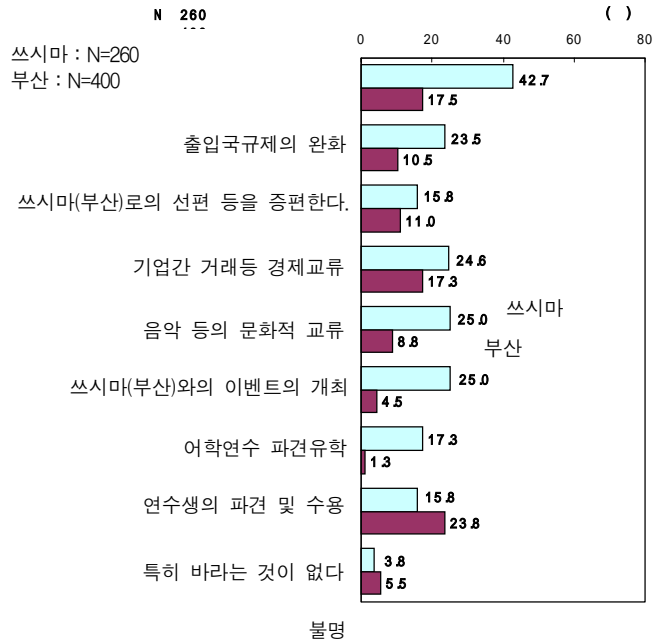


<그림 12> 쓰시마(부산)와의 교류를 추진해야 하는가

한편 부산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조금 그렇게 생각한다」가 합해서 36.8%, 「그다지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가 마찬가지로 35.8%로 「생각한다」와 「생각하지 않는다」가 거의 같은 정도로 쓰시마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교류 촉진에 대한 의욕이 낮게 나타났다.

### 9) 교류 촉진에 있어서의 희망

쓰시마 또는 부산과의 교류에 있어서 희망하는 것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쓰시마에서는 「출입국의 규제 완화」가 42.7%로 가장 많이 회답되었다(그림 13).



<그림 13> 쓰시마(부산)와이 교류에 있어서 바라는 것

다음은 「부산과의 공동 이벤트·사업의 개최」 「어학 연수·파견 유학」이 함께 26.0%, 「음악 등의 문화적 교류」가 24.6%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교류 촉진책의 실시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부산에서는 「특히 희망하지 않는다」가 23.8%로 가장 많았고, 쓰시마의 자리매김이 낮은 것을 엿볼 수 있다. 이하 「출입국 규제의 완화」가 17.5%, 「음악 등의 문화적 교류」가 17.3%로 나타났다.

### 10) 앙케이트의 총괄

이번 앙케이트를 총괄하면, 먼저 쓰시마에서는 부산·한국으로의 여행 경험이 45.8%로 거의 반수가 경험이 있고, 한국에서의 방문지도 부산이 86.6%으로 태반을 점하고 있다. 또, 방문 목적은 관광을 위해서가 51.4%로 과반수를 점하고 있고, 관광 목적으로써의 부산 여행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또 부산에 대한 이미지도 「느낀다」, 「다소 느낀다」를 합계하면 쇼핑, 도회적 이미지, 친근감, 관광지로서의 매력, 음식에 대한 매력이 50%를 넘고, 부산에 대한 이미지는 대단히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쓰시마에서 본 부산은 국외이면서도 친근감이 있고 또한 가기 쉬운 근린 관광지로 인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부산에서 본 쓰시마는, 먼저 일본으로의 여행 경험이 18.1%로 조금 낮고, 일본에서 간 적이 있는 장소로는 도쿄, 후쿠오카가 많고, 쓰시마는 같은 나가사키 현내의 이키나 오이타현 벳푸를 하회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쓰시마는 거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여행지로서 그다지 인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쓰시마에 대한 이미지도 「느낀다」, 「다소 느낀다」를 합계해도 관광지로서의 매력, 역사적 매력에서 겨우 30%를 상회하고 있는 정도여서, 이미지 면에서도 인지되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된다. 따라서 부산에서 본 쓰시마는 물리적으로는 가깝고 가기 쉽지만, 매력이 있는 관광지로서 인지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상호의 교류를 추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반영되어 있으며, 쓰시마의 49.2%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회답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부산에서는 9.5%밖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하고 있지 않아, 쓰시마와 부산과의 인구, 경제 격차를 감안하더라도 양자간의 인식의 격차가 대단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 5. 쓰시마의 앞으로 한일 교류 추진 방침

쓰시마 도내에서의 한국에 대한 교류 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 의식을 어떻게 한국측에 전하고, 쓰시마에 대한 인지를 어떻게 높이는가라는 각각의 과제가 남아있다.

앞으로 한국·부산과의 교류에 관하여, 쓰시마에서는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움직임에 관하여 살펴보자.

### 1) 쓰시마가 내세우는 「지역 활성화 플랜」 ~한일 교류의 거점 만들기~

쓰시마를 비롯한 나가사키 현내의 이도에서는 약년층의 도외 유출에 의하여, 과소화·고령화의 진전이 보다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나가사키현에서는 21세기의 「성」만들기를 검토함에 있어서 경관이 풍부한 자연이나 역사·문화재 등을 이용·활용하여, 성 내외의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하려고 지역 주민의 참가 하에서의 시책 책정을 추진하고 있다.

쓰시마에서는 지역 활성화의 지킴으로서 「성의 활성화 플랜 추진 회의」를 개최하여 교류 인구 증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일 교류」와 「관광 활성화」를 중점 목표로 한 활성화 계획을 정리하였다.

이 중 「한일 교류」 사업에는 「한일 국민 교류의 해 추진 사업」으로 이름짓고 한일 교류·우호의 심벌인 조선 통신사의 재현, 한일의 역사·문화 교류를 테마로 하여 세미나 등 학술 문화 교류의 추진, 더욱이 한일 교류 사업의 활동 거점의 정비로서 「쓰시마 국제 문화 교류 센터」의 건설 등이 담겨 있다.

이와 같이 쓰시마에서는 지역 활성화책으로 한일 교류를 내걸고 각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2) 쓰시마 관광의 PR, 한일 교류 사업의 거점 「쓰시마 한일 교류 협의회」의 설립

「관광 입현」을 지향하는 나가사키현에서는 장기 종합 계획에서 지역이 자주적으로 추진하는 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출연하는 등 지원을 행하고 있다.

쓰시마에서는 이러한 행정 지원을 토대로, 2000년 9월에 「쓰시마 한일 교류 협의회」를 설립하였다. 이 협의회에서는 「쓰시마 아리랑제」 등 쓰시마 도내에서 개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한일 교류 이벤트간의 연대를 깊이고, 쓰시마의 기간 산업으로서 국제 관광의 진흥을 일체적으로 추진하고, 한층 더 국제 교류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에 개최된 동 회의에서는 각 정의 대표적인 한일 교류 이벤트를 「섬의 이벤트」로 자리매김하고, 앞으로 공동으로 PR, 참가 촉진 등의 지원을 행하는 방침이 확인되었다(표 5).

<표 5> 쓰시마의 이벤트로서 자리잡은 한일교류사업

개최지 등	이벤트 명	비 고
6町 공동	芳州外交塾	
巖原町	쓰시마아리랑축제	
美津島町	친구 음악제	
豊玉町	일한에너지스포츠 교류대회	신규 이벤트
上県町	청소년 스포츠 교류	신규 이벤트
上対馬町	국경마라톤 in 쓰시마	

실제의 활동 실적으로는 부산 영도구나 부산광역시, 경주시 등에 총 111명의 관광 교류 추진단을 파견하여, 여행 회사에 대하여 톱 세일즈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 전술한 바와 같이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경주 벚꽃 마라톤」과 「국경 마라톤 IN 쓰시마」와의 자매 결연이나 쓰시마의 3고교에 대한 부경대학의 입학 설명회의 실시 및 유학생의 수용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이 「한일 교류」가 쓰시마의 지역 진흥책으로서 보다 명확하게 자리매김되어, 그 움직임도 활발화되고 있다.

## 6. 쓰시마의 한일 교류 촉진 방안

이상과 같이 쓰시마에서의 한국과의 교류 사업은 큰 확대를 보이려 하고 있다.

끝으로 한층 더 깊은 교류의 촉진을 위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그 방안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1) 쓰시마의 지역성을 명확하게 표명한 PR을

부산은 한국 최대의 무역항으로서 일본 각지 등 세계에 무역 항로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전세계의 다양한 도시나 나라를 상대하고 있는 부산에 대하여 쓰시마는 어떠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는가. 또 지역으로서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 명확하게 표명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에서는 쓰시마에 대한 이미지나 평가에 관하여, 관광지로서의 매력이나 역사적 매력을 느낀다고 평가하는 회답이 전체의 약 3할 정도였다.

또 부산~쓰시마간 국제 항로를 통한 한국인의 입국자는 7, 8월만 해도 연간 입국자의 4~5할을 점하고 있고, 캠프 등의 레저나 해수욕을 즐기는 한국인이 많은 것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해수욕장이나 낚시의 스포츠 등 쓰시마의 자원인 자연이나 한국과의 교류를 나타내는 사적이나 관광 스포츠 등 쓰시마의 지역성을 재인식하고, PR할 필요가 있다.

또 쓰시마는 나가사키현 내에서, 특히 한국에 거리가 가깝고 한일 교류가 활발한 지역이므로 주민에게 한국어 학습을 권장하여 「어디에서라도 누구와라도 한국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지역」으로 PR할 수 있도록 섬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도 1책이라고 생각한다.

### 2) 교통편의 향상에 의하여 지역간 이동의 간편화

쓰시마는 남북 약 82km로 세로로 길며, 예를 들면 쓰시마 남부의 정·이즈하라정에서 북부의 정·가미쓰시미정까지의 이동에 자동차로 2시간 걸린다.

현재, 쓰시마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교통기관은 버스 뿐이며, 그 운행 회수는 결코 많지 않다. 또 휘발유 가격은 나가사키현 본토와 비교하면 해상 수송에 드는 코스트의 문제 등으로 상대적으로 비싸고, 그로 인하여 택시나 렌트카 요금도 비교적 비싸다.

앞으로 관광객의 유치를 추진하는 것과 병행하여 쓰시마 도내의 지역간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교통 시스템의 정비도 필요하다.

### 3) 알기쉬운 표시로 관광객에게 안심을

근래에는 단체 관광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관광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측은 지역의 명소·구적을 안내하기 위하여, 게시판이나 표식 등을 알기 쉽게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광객을 받아들일 경우, 일본 국내에서 만이라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를 일본어로 표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한국 등 해외로부터의 관광객을 받아들일 경우,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에 관해서는 일본어만이 아니라 한국어나 영어도 병기하는 등 표식의 정비가 필요하다.

#### 4) 상호 이해의 추진을

해외를 여행하거나, 외국인을 받아들이거나 하는 것에 의하여 일본의 문화나 습관이 독자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예를 들면 식사나 화장실, 입욕 등의 생활 습관이 대표적인 것이고, 호텔 등 숙박 시설에서는 이러한 습관의 차이로 트러블을 일으키는 케이스도 있다.

그래서 나가사키현에서는 외국인이 편안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숙박 시설이나 관광 시설에서의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언어나 표시 등의 면에서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이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상호의 국가나 지역의 습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국가와 국가의 상호 이해, 외국 문화의 학습에 공헌하여 국제 교류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 5) 「기다림의 교류」에서 「서로 방문하는 교류」로

쓰시마 및 부산 쌍방에서 실시한 앙케이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쌍방의 지역을 방문한 경험이 없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교류의 촉진에는 먼저 그 지역과 풍토를 접하는 것, 그리고 현지인과 이야기를 직접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교류의 장이 쓰시마 도내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부산을 방문하는 등 교류의 장을 한국으로 옮기는 것, 즉 「기다림」의 교류에서 「서로 방문하는」 교류로 스스로 바뀌어 갈 필요가 있다.

더욱이 한국인에 대한 비자의 발급 조건 완화 등 도항 수속의 간편화를 도모하는 등 한국으로부터의 교류 인구를 증가시키는 구조 만들기도 필요하다.

쓰시마에서는 2000년 8월에 쓰시마 6정 합병 협의회가 설치되어, 2004년 3월의 신시 탄생을 지향한 조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신시 환생에 따라 쓰시마에서의 한국과의 지역간 교류가 더욱 크고 통합된 것이 되는 것에 기대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사에 임하여 부산에서의 앙케이트 조사에 협력해 주신 (재)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